

SFC v. Vizio Case



2024 02. 06.

오에스비씨(주)

- Software Freedom Conservancy(SFC) : 비영리 오픈소스 라이선스 감시단체
- Vizio :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 가전제품 업체
- SFC는 2021. Vizio의 스마트 티비를 구입, 해당 제품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검증, 해당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커널 및 최소 25개 이상의 코드가 GPL 및 LGPL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음에도 Vizio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발견
- SFC는 2019. 10. 19. 본인들이 직접 Vizio를 상대로, 이러한 Vizio의 행위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임을 이유로, 계약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코드가 포함된 소스코드 전체를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개할 것을 구하는 소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

- 코드의 원 저작권자가 아닌 SFC가 위임 없이 직접 라이선스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 위반만으로도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금전 손해배상 이외에 소스코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 사건은 본질적으로 저작권 사건이므로 연방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임 -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 연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 신청 (motion to move)
- 별도의 계약 위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 SFC가 해당 계약의 위반 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음 - 원고 적격 없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 (motion to dismiss)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저작권 청구 이외에 오픈소스 계약 위반에 따른 별도의 책임을 물을 권리가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로 정리
- GPL 라이선스가 해당 코드를 포함한 산출물에 대해 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의 당연한 내용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부여한 라이선스의 조건이 그러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임. 이러한 의무이행은 저작권과 별도의 권리임. -> GPL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되는 소스코드를 공급받고자 하는 제3자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와는 다른 별개의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임을 최초로 인정함.
- 사건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환송
- 이 결정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위임 없이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리가 최초로 제시됨

▣ SFC v. Vizio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단 (2022. 12. 29.)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Vizio의 motion to dismiss에 대한 결정에서, 연방법원의 판결 이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임 : SFC가 계약 위반 책임을 저작권자와 별도로 직접 가질 수 있음을 인정
- GPL 라이선스의 공개 의무 미이행시 공개를 통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시
- Motion to dismiss 기각, 정식의 본안 재판절차로 회부

- 이론상 GPL 등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에 관하여, 모든 개발자에 의한 공개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열림
- 바이너리 스캔 방식의 검증을 근거로 했을 것으로 추정 - 이러한 방식에 의한 상기 청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주체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짐 (법무법인 등)
- 전반적으로 공개의무 있는 라이선스의 위반 책임이 무거워지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에는 예방 및 배상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감사합니다

오에스비씨(주)

©2024 OSBC Inc.